

# 707 단장 “국회의원 150명 넘지 않게 끌어내라 지시 받아”

###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고백...“부대원 이용당한것 안타까워”

### 비상계엄 동원 계엄군 잇따른 양심선언에 속속 드러나는 진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한 사전 계획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밀어붙인 정황들이 군 간부의 양심선언 등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거나 반대했다는 입장을 보인 이후 군 간부들의 양심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은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상황을 고백했다. 규정상 신원 기밀인 김 단장은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쓰지 않은 채 이름이 적힌 명찰까지 달고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 봉쇄 지시를 받았고, 국회 구조를 몰라 티맵을 겨 확인했다”며 “의사당에 진입한 뒤 안에서 문을 틀어막는 식으로 봉쇄하려고 창문을 깨라는 지시도 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1~2분 간격으로 (광종근 특수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위압성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의원 150명 지시’에 대해서는 “사령관이 말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처음부터 ‘복합’이라는 말은 없었다”며 “빨리 가서 국회를 봉쇄하고 확보하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실탄 준비에 대해서는 헬기 1대에 탑승하는 8명의 실탄을 포함 보관했으며 분량은 개인별로 5.56mm 10발, 9mm 10발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또 별도로 나무 상자에 공포탄과 연습용 수류탄도 실었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어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며

“저를 제지하는 관계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고 왔다. 계엄사령부로 항의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몰라서 행동했지만, 모르는 것 또한 제 책임이라 생각하고 부대원들을 내란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린 것에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단장은 “707부대원들은 모두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면서 “어떠한 법적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 책임 지겠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사랑하는 군을 떠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상계엄 때 육군정보사령부 소속 병력 및 요원도 계엄군으로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정보사 병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도 과천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런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인원은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는 물론 정보사 인원도 계엄 실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2·3 내란사건(비상계엄) 때 기존에 거론된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 외 정보사 병력도 투입됐음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제보를 인용해 “정보사 소속 정보요원 7명이 경기도 남부의 모처에 위치한 정보부대에 급히 파견돼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위치정보 파악 임무를 수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연합뉴스



“부대원들은 이용당한 피해자”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제707특수임무단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진입을 위해 투입됐다. /연합뉴스

## “내란에 정보사 체포조 동원... 전시계엄 유도 가능성”

### 민주당, 제보 내용 공개 “계엄 당일 방첩사 내부 지시 거부로 구타 정황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부대가 기존에 거론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외에 국군정보사령부 병력도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은 이날 “정보사령부 소속 정보요원 7명이 경기도 남부 모처에 위치한 정보부대에 급히 파견돼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파견된 병력은 탈북자나 간첩에 대한 합동 심문을 위해 조직된 부대를 TF로 개편하고 합동수사업무 수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은 별도의 감청팀까지 꾸려 위치추적

이 안 되던 정치인과 유튜브에 대한 위치추적을 지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병력에 대해 “정보사 예하에 있는 특수정보부대로, 북파공작원 부대(HID)와 유사한 최정예 부대다. 북한 등 적국에 들어가서 요인을 납치하고 암살하는 전문 특수부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 병력 투입에 참여한 주요 사령관과 해당 사령관 예하 각 여단장과 부서장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다. 군사법원법상 내란죄는 방첩사가 수사하도록 돼 있는데, 내란 사태를 방첩사가 주도했으므로 혐의와 고발처를 바꿨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정부가 북한과의 국지전 도발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발판 삼아 ‘2차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들이 체포되지 않은 만큼 국지전 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전시계엄으로 가는 판 뒤집기가 제일 위험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선원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우크라이나에 파견한 10여명 이상의 요원이 공격당하면 또다시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명목으로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기현 의원은 비상계엄이 발동된 지난 3일 계엄 지시에 불복한 방첩사 간부와 부대원들이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인 김대우 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관련 임무 하달에 항의한 최 소령을 구타한 뒤 강제로 버스에 태워 선관위로 출동했다”며 “임무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부대원들에게는 폭언을 퍼부으며 다그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표 “계엄군 병사들 아무 잘못 없다 계엄군 향한 화살은 명령 내린 자들 향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초급 간부와 병사들에게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초급 간부와 병사 대부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계엄군을 향한 화살은 명령을 내린

자들을 향해야 한다”며 “그들은 어떤 작전인지도 모른 채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병사들을 이용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상계엄에) 투입된 계엄군의 눈빛을 읽을 수 없다”며 “죄 없는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소신한 눈빛이 슬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자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계열	학 과	모집인원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 학과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명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www.kwangshin.ac.kr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For the Lord  
To the World

www.kwangshin.ac.kr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